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0호 [주제 제25283호] 주제 105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 김능우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높은 생산성과로 당을 충직하게 밟아온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끌어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진행된 70일 전투기간에 새롭고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할 때 대한 전투적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세계적수준의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계량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세워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퍼뚫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낫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 국산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식의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수십 대의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여 민족경제에 기여하는 기쁨을 펼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정밀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에는 당에 대한 공장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로동계급이 안아온 척척한 성과에 절하고보니 온몸에 힘과 열정이 솟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전으로 달려온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래와 기질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세형의 기계설비들은 기술적성능이 대단히 좋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보조장비들도 그흔히 갖추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동화, 현대화수준에 있어서 나디무적축면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기계설비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계설비제작에 리용된 핵심부분품을 비롯한 모든 협동품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완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강력은 이렇듯 기적을 낳는 비옥한 토양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21세기 기계발전추세에 맞으면서도 국산화된 세형의 기계설비들을 제작할수 있는

것은 현판단위들에서 질이 확고히 담보된 협동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최근에 당에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한계단 도약시킬것을 결심하고 수많은 기계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도록 조직지도하였는데 이제는 이 공장에서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기계설비들을 광범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당당히 만리마선구자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강직장

현대화공사장,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계생산량과 질은 주강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 질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올해에 주강직장현대화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강직장현대화에서 중요한것은 생산 및 기술공정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는것이라고.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주강직장을 현대화하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강직장 현대화공사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둘이 크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통합생산지휘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대한 문제, 공장로동계급이 현대과학기술로 훈련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 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립니다. 대한 문제 등 꼼꼼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현대화 사업이 방대하지만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닮은 영웅적 로동계급, 주체형의 로동계급답게 새로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보완해 만들어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일한다며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 수준의 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을 돌아보니 기본이

매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에게 정말 대만족했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맡고 있는 임무가 매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의 이도에 맞게 현대적이며 성능이 높은 기계설비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뜨거운 사랑과 하늘 같은 은력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훠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하신 새로운 전투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산장군의 담력은 주체조선의 존엄이고 힘이다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선군혁명의 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복불을 보답하는 륜운한 홍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최근 4. 1 5문화창작단에서 내놓은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존엄』(박태수·작은 미체무장간월선 『루에블로』호로 불파 몇시간동안에 통폐하에 나포했다.

이 소식에 접한 미제는 불맞은 중상이마냥 날뛰며 해통모험을 비롯한 많은 무력을 조선동쪽으로 들여밀어 『루에블로』를 떠돈다. 이것은 군사적 힘을 『존엄』으로 간주하는 미세만이 할수 있는 선택이었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한적의 무장간월선으로 하여 조성되는 첨에 한 대결국면을 놓고 정의와 평화를 상정하는 혼임, 그를 수호하는 계적이 어떤인간을 밟았고 있다.

적제세력뿐아니라 사회주의전영에서 까지도 배를 돌려주는 것이 무역충돌을 띠기 위한 회상의 방도라고 여기고 있다. 배에 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더욱한 승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두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리우고있다.

주제 5 (1968)년 정초

이미수령님께서는 당시 국가의 책임임 군들에게 혁명진지를 더욱 품론의 디자인 일정생활을 강조하는 한것으로 하여 두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리우고있다.

작품은 이로써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이 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장조에 모를 박고있다. 하여 미제와의 대결은 군사적대결이기 전에 사상의 대결,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제가 군사적압박과 외교적압

력으로 공화국주권을 2 0회 경축행

사를 방해하고 무장간월선을 들려

받았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충돌을

나타운 어린이들에게 송을

해입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나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

치는 속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송을

해입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은 기운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내밀고 투쟁을 하여 청진조선인민군

정준의 꿈도 깊은 삶의 영에도 조국보위에 있다

전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울려퍼지는 신념의 메아리

로병실화연단 《영원한 승리의 노래》에 참가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3명의 어린이들의 사진이 있다. 김명금로인이 바로 그들중 한명이다.

이제 그만 정든 모교를 떠나 조국보위초소에 머니되는 그들, 청춘의 열정과 희망을 품은 학생들이 모여있었다.

이제 그만 정든 모교를 떠나 조국보위초소에 머니되는 그들, 청춘의 열정과 희망을 품은 학생들이 모여있었다.

이제 그만 정든 모교를 떠나 조국보위초소에 머니되는 그들, 그들은 어이하여 죄소로 떠나는 새 세대들앞에 섰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깊은 애국적인 삶입니다.》

로병실화연단 《영원한 승리의 노래》의 첫 순서로 영생 불멸의 희망을 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쳤다.

전화의 나날 원우들을 무찌르는 선전에서 고지의 병사들이

이 목청껏 부른 노래, 강렬의 명장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오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돌진전에 나선 병사들에게 신실을 안겨준 이 노래는 참기자들의 기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열렬한 박수소리, 이어 연단에 오른 사람들은 울레 75살 난 김명금로인이었다.

지금도 신천락문화관에 가면 원한의 밤나루문화학당하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빠트원 판문을 나서던 나는 문득 멀어져가는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지침을 찾는 민간장교 마주쳤다.

그는 늘잠꾸러기인 마개와 오늘은 벌스에 새벽부터 일어나 물다발을 엮는다. 물목걸이를 만든다면 본무장을 펴우며 아침식사도 견진 수풀에 걸렸다. 그러면서 그려온

수풀에 출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면서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행님, 누나들을 바래워 고았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렇게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마

련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렇게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렇게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교들에서는 초소로 떠나는 출업

생들을 바라우는 활동모임이

강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서 폐사로운 것으로 되었고 누나들은 눈에 익은 광경으로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고향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선으로 떠났던 1950년 6월을 잊을 수 없다.

세세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선형렬차의 기적소비가

이제 처음으로 떠난것은 그때부터였으리라.

한국에는 젊어졌다. 어찌 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보위를 충성의 가장 큰 최강파로 부르며 여기는것인가.

재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학

